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Accuracy of References i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이 윤 정* · 이 복 임**

I. 서 론

참고문헌은 저자의 생각과 논문의 작성 배경을 설명하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생각들을 더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부터 하여금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기존 연구결과와 본인 지식 간의 차이를 확인하게 한다(Al-Benna et al., 2009). 따라서 적절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논문의 신뢰성 및 합당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Peat et al., 2002). 그러나 국내외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잡지에 실린 논문의 참고문헌 출처표기와 내용 인용에 다양한 오류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석민현 등, 2008; 조길호 등, 2002; Al-Benna et al., 2009; Sutherland et al., 2000; Wager & Middleton, 2002). 최근 전자저널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저자의 이름과 논문 제목에 대한 오류는 논문 검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부정확한 참고문헌 인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Davids et al., 2010).

한국산업간호학회지는 산업보건정책, 산업간호실무, 산업간호사의 교육 등을 위한 근거 중심의 연구를 견인해냄으로써 산업간호의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간호학 잡지로서, 1990년 창립된 이래 2009년 12

월까지 총 248편의 논문을 출간하고 있다. 연도별로 출간된 논문 수를 살펴보면 '90~'95년까지 24편, '96~'00년까지 70편, '01~'05년까지 68편, '06~'09년까지 86편으로 점차 논문의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실무현장에서 산업간호사의 노력과 산업간호학자의 활발한 연구 수행의 결과로 산업간호 논문의 양적 발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러나 한국산업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됨으로써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현 시점에서, 학회지 수록 논문의 질적 측면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논문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제의 독창성 및 유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리 전개의 합리성', '문장표현의 명료성', '자료 및 데이터의 정확성', '내용의 완성도', '적절한 인용문헌의 제시', '형식의 적합성' 등의 기준이 활용되는데(이승채, 2003), 이 중 분석의 객관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인용문헌의 정확성' 검증을 통해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하다(Al-Benna et al., 2009; Crichlow et al., 2004; Siebers & Holt, 2000). 인용문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인용했다고 한 내용이 원전의 논지나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인용오류(quotation erro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팀장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구교수(교신저자 E-mail: mizbil@hotmail.com)

접수일: 2010. 8. 5 심사완료일: 2010. 8. 19 게재확정일: 2010. 11. 19

와 주어진 서지 정보로 원전을 찾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출처표기오류(citation error)'가 그것이다 (Lee & Lee, 1999). 이 중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유리한 출처표기 오류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Davids et al., 2010). 본 연구는 한국산업간호학회지의 참고문헌 출처표기 정확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자들의 문헌고찰 깊이와 출판과정의 전문성을 간접 확인하고 학술지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오류율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오류 경향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분석을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 우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3년간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총 72편을 수집하였다.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심사규정이 2007년 1월에 개정·적용되었기 때문에 최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7년 이후의 논문만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수집된 72편 논문 중 인용된 참고문헌이 모두 한글인 논문 14편을 제외하고 총 58편을 확정하였다. 분석대상에서 국내 논문을 제외한 것은, 연구자들이 참고하는 국외학술지의 경우 펌메드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어 분석대상 자료의 정확성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나(석민현 등, 2008) 국내학술지의 경우 활용할만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재하여 정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58편의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중 저서,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등을 제외한 426개의 영문 국외원저(original article)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문 국외원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펌메드 등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료의 정확성 유무를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 인용된 영문 국외원저 426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정확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Al-Benna 등(2009)과 Oermann 등(2001)이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분석을 위해 인용된 참고문헌의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권 번호, 출판년도, 페이지 번호 등 6가지 항목을 검토하였다.

오류는 크게 주요 오류(major citation error)와 미세 오류(minor citation error)로 구분하였다. 주요 오류는 제공되는 참고문헌의 정보를 가지고 논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자명이 틀리거나 누락된 경우, 저자의 이니셜이 잘못되거나 저자의 순서가 바뀐 경우, 논문의 제목이 부정확한 경우(검색이 어렵거나 의미가 바뀌는 경우), 저널명은 의미가 바뀔 정도로 오자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Am J Hosp Palliat Care를 J Hospice로 표기), 권 번호나 연도가 누락되거나 틀린 경우, 페이지가 누락되거나 시작 페이지가 틀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미세 오류는 논문을 검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오타나 누락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저자명의 부호 오류(예를 들어, Sandström을 Sandstrom으로 표기), 논문 제목의 부분적 오타 또는 부제목 생략, 저널명의 가벼운 오타, 마지막 페이지가 틀린 경우 등이 포함된다. 구두점 오자는 오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펌메드를 중심으로 해당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오류 포함 유무에 따른 참고문헌의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한 개의 참고문헌에는 여러 개의 주요 오류 및 미세 오류가 중복된 경우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의 수를 모두 합하여 총합을 산출한 뒤 개별 오류의 내용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분석 대상논문의 일반적 사항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에 수록된 논문 중 참고문헌으로 영문 국외원저를 포함하는 논문은 총 58편이고, 인용된 영문 국외원저의 수는 426편이었다. 논문 당 인용된 평균 영문 국외원저 수는 7.34편이었다(표 1).

〈표 1〉 분석대상 논문 및 참고문헌의 수

연도	논문 수(%)	참고문헌 수(%)	논문 당 평균 참고문헌 수
2007	19 (32.8)	132 (31.0)	6.95
2008	16 (27.6)	105 (24.6)	6.56
2009	23 (39.7)	189 (44.4)	8.22
총 계	58 (100.0)	426 (100.0)	7.34

2. 참고문헌 오류율

분석대상 426개의 참고문헌 중에서 인용에 전혀 오류가 없었던 참고문헌은 모두 228편(53.5%)이었고, 오류가 있었던 참고문헌은 198편(46.5%)이었다. 주요 오류를 포함한 논문은 147편(34.5%)이고, 총 170건의 주요 오류가 분석되었다. 미세 오류를 포함한 논문은 80편(18.8%)이고, 미세 오류 발생 건수는 85건이었다(표 2).

〈표 2〉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가 있는 참고문헌의 수

참고문헌 수	오류가 있는 참고문헌 수(%)		오류의 수	
	주요	미세	주요	미세
426	147 (34.5)	80 (18.8)	170	85

3.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

한 개의 참고문헌에는 여러 개의 주요 오류 및 미세 오류가 중복되어 들어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되어 나타나는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의 수를 모두 합하여 총합을 산출한 뒤 개별 오류의 내용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총 오류의 수는 255개 이었다. 주요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저자에 대한 오류이었으며(61.2%), 권 번호에 대한 오류(12.4%), 논문 제목의 오류(9.4%) 등의 순이었고, 연도에 대한 오류가

가장 적었다. 반면 미세 오류에서는 제목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고(44.7%), 다음이 저자에 대한 오류(27.1%), 페이지에 대한 오류(21.2%) 등의 순이었다. 미세 오류 중에서 연도에 대한 오류는 한건도 없었다(표 3).

오류의 주요 내용으로 저자에 대한 오류에서는 주요 오류로 여러 명의 저자들 중 일부를 빠뜨리거나, 저자의 순서를 잘못 기입한 경우, 이니셜에 오류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미세 오류로는 영어가 아닌 저자의 외국어 표기를 잘 못 한 경우가 많았다. 제목과 관련된 오류에서는 주요 오류로 논문 제목을 끝까지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며 미세 오류로 부제목을 빠뜨린 경우, 단어들에 있어서 가벼운 오타를 범한 경우가 많았다.

IV. 논 의

한국산업간호학회지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 중 영문 국외원저의 출처표기 정확성을 검토한 결과, 오류가 있었던 참고문헌은 46.5%이었다. 이는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검토한 국내 타 연구에서 제시한 참고문헌 출처표기 오류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 대한간호학회지 및 7개 분과학회지(기본간호학회지, 아동간호학회지, 성인간호학회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지역사회간호학회지, 간호행정학회지)에 나타난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을 분석한 석민현 등(2008)의 연구에서 오류율은 47.9%로 보고되었고,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검토한 모형진 등(1999)은 52.6%~58.8%의 오류율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1년간의 가정의학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연구한 변재준(1996)의 연구에서는 국외 문헌의 출처표기 오류가 77.8%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와 출처표기 오류율보다는 낮은 수치의 오류율을 보고하는 일부 연구결과들도 있다. 3년간 대한마취과학회 논문을 검토한 김용철 등(1999)은 참고문헌의 오류율을 44%로, 소아과 관련 학회지에

〈표 3〉 주요 오류와 미세오류의 분류

							오류 수(%)
	저자명	제목	저널명	권, 호	출판년도	페이지	총계
주요 오류	104(61.2)	16(9.4)	14(8.2)	21(12.4)	4(2.4)	11(6.5)	170(100.0)
미세 오류	23(27.1)	38(44.7)	5(5.9)	1(1.2)	-	18(21.2)	85(100.0)
총 계	127(56.4)	54(24.0)	19(8.4)	22(9.8)	4(1.8)	29(12.9)	225(100.0)

실린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확도를 평가한 조길호 등(2002)은 오류율을 39.6%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논문에 비하여 본 연구의 참고문헌 출처표기 오류율이 높은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참고문헌이 국내 문헌을 제외하고 국외 영문원저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모형진 등(1999)과 변재준(1996)은 국내문헌보다 국외문헌의 출처표기 오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오류율이 국내 타 학회지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으나, 국외 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오류율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1년간 Burns와 Journal of Burn Care & Research에 인용된 참고문헌을 분석한 Al-Benna 등(2009)의 연구에서 참고문헌 오류율은 16.6%이었고, 3개 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분석한 Marilyn과 Linda(2002)는 오류율이 22.9%임을 보고하였다. Allergy 관련 저널을 대상으로 연구한 Robert(2000)는 6개의 오류항목(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발행연도, 페이지)으로 구분하여, 3가지 학술지의 오류빈도가 17.7~28.2%의 범주에서 복수의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내 학회지의 참고문헌 오류율이 더 높은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임하고 있는 외국의 우수한 학술지들에 비하여 국내 학술지는 아직까지 상당수 연구경험이 적은 연구자에 의해 쓰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모형진 등, 1999). 또한, 오류의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이니셜에 오류를 범한 경우, 영어권이 아닌 저자의 외국어 표기를 잘못된 경우, 논문 제목을 끝까지 표기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기는 단순한 주의 소홀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오류 형태별로 보면, 주요 오류 유형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저자명에 대한 오류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석민현 등, 2008; 모형진 등, 1999; 조길호 등, 2002; Aronsky et al., 2005). 저자명에 대한 오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명의 저자들 중 일부를 빠뜨리거나, 저자의 순서를 잘못 기입한 경우, 이니셜에 오류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오류는 독자들로 하여금 참고문헌 검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검색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한다(석민현 등, 2008).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높여 논문 및 저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자는 정확하고 주제와 관련된 참고문헌을 검토해야 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진다(Sutherland et al., 2000). 논문을 직접 읽지 않고 의학문헌의 검색도구를 통하여 초록만을 보거나 관련문헌의 참고문헌 목록만을 본 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수의 오류가 틀린 인용을 똑같이 틀리게 반복 인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용철 등, 1999). 연구자는 일차문헌을 충분히 고찰하고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자신이 인용한 참고문헌이 정확히 기술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석민현 등(2008)은 참고문헌을 다양한 유형으로 편집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을 제안하였다. 한편, 우수심사위원상을 제정하여 신속하고 오류가 없는 심사를 독려하는 제도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김용철 등, 1999). 해외의 저명 학술지와 같이 나이와 경력에 관계없이 그 분야의 논문을 많이 쓴 제1저자나 책임저자에게 논문을 맡겨 심사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적인 투고규정을 마련하고, 특별기고 등을 통해 저자들에게 투고규정 준수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자로 하여금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첫 장을 복사하여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출처표기 오류를 줄일 수 있다(Asano et al., 1995).

참고문헌의 오류는 크게 내용인용오류와 출처표기오류로 구분되는데(Lee & Lee, 1999), 본 연구는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잡지명, 권번호, 페이지 번호 등 6개 항목에 대한 출처표기오류만을 분석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내용인용오류의 판단은 많은 노력과 시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향후 내용인용오류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산업간호학회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현 시점에서 부분적이지만 학회지 수록 논문의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를 지닌다. 한국산업간호학회지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국내 유일의 산업간호관련 학술지로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투고자 자신들이 학회지 등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과 동시에,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들은 세밀하고 철저한 투고규정을 제시하고 투고규정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유발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출처표기 오류율과 오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자의 문헌고찰 깊이와 출판과정의 전문성을 간접 확인하고 학술지의 질적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행되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한국산업간호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 인용된 영문 국외원저 426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Al-Benna 등(2009)과 Oermann 등(2001)의 분석방법을 기초로 참고문헌의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권 번호, 출판년도, 페이지 번호 등 6가지 항목을 검토하였다. 오류는 크게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로 구분하였고, 펄드트를 중심으로 해당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오류 포함 유무에 따른 참고문헌의 실수와 백분율을 분석하고, 중복되어 나타나는 주요 오류와 미세 오류의 수를 모두 합하여 총합을 산출한 뒤 개별 오류의 내용을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분석대상 논문 중 인용에 전혀 오류가 없었던 것은 53.5%이었고, 오류가 있었던 문헌은 46.5%이었다. 주요 오류를 포함한 논문은 34.5%이고, 미세 오류를 포함한 논문은 18.8%이었다. 주요 오류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는 저자에 대한 오류이었으며, 미세 오류에서는 제목에 대한 오류가 가장 많았다. 저자에 대한 주요 오류는 여러 명의 저자들 중 일부를 빠뜨리거나, 저자의 순서를 잘못 기입한 경우, 이니셜에 오류를 범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제목과 관련된 주요 오류는 논문 제목을 끝까지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었다.

논문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높여 논문 및 저자의 신뢰를 유지하고 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투고자 자신들이 학회지 등재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과 동시에, 편집위원회와 심사위원들은 세밀하고 철저한 투고규정을 제시하고 투고규정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 유발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용철, 조상윤, 염종훈, 신우중, 전종현, 이동호 (1999). 대한마취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인용시 인용빈도 및 인용의 정확성. 대한마취과학회지, 37(5), 877-884.
- 모형진, 김영태, 김재욱 (1999). 국내 주요 산부인과 학술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대한산부인과학회지, 42(5), 1059-1064.
- 변재준 (1996). 가정의학회지에 인용된 참고문헌의 정확성. 가정의학회지, 17(12), 1385-1391.
- 석민현, 장희정, 박정숙, 김혜원, 서연옥, 신현숙, 양긴향, 정면숙, 정명실 (2008). 간호학술지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대한간호학회지, 38(1), 180-185.
- 이승채 (2003). 우리나라 학술지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1), 227-244.
- 조길호, 이미경, 한만용, 김영래, 김서정, 이규형 (2002). 소아과 관련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의 참고 문헌 정확도와 인용형태분석. 소아과, 45(11), 1325-1331.
- Al-Benna, S., Rajgarhia, P., Ahmed, S., & Sheikh, Z. (2009). Accuracy of references in burns journals. *burns*, 35(5), 677-680.
- Aronsky, D., Ransom, J., & Robinson, K. (2005). Accuracy of references in five biomedical informatics journals. *J Am Med Inform Assoc*, 12(2), 225-228.
- Asano, M., Mikawa, K., Nishina, K., Maekawa, N., & Obara, H. (1995). Improvement of the accuracy of references in the Canadian Journal of Anaesthesia. *Can J Anaesthes*, 42(5), 370-372.
- Crichlow, R., Winbush, N., & Davies, S. (2004). Accessibility and accuracy of web page references in 5 major medical journals. *JAMA*, 292(22), 2723-2724.
- Dauids, J. R., Weigl, D. M., Edmonds, J. P., & Blackhurst, D. W. (2010). Reference accuracy in peer-reviewed pediatric orthopaedic literature. *J Bone Joint Surg Am*, 92(5), 1155-1161.
- Lee, S. Y., & Lee, J. S. (1999). A survey of reference accuracy in two asian dermatologic journals(the journal of dermatology and the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Int J Dermatol*, 38(5), 357-360.
- Marilyn, H. O., & Linda, D. Z. (2002). Accuracy of references in three critical care

- nursing journals. *Journal of PeriAnesthesia Nursing*, 17(2), 78-83.
- Oermann, M. H., Cummings, S. L., & Wilmes, N. A. (2001). Accuracy of references in four pediatric nursing journals. *J Pediatr Nurs*, 16, 263-268.
- Peat, J., Elliot, E., Baur, L., & Keena, V. (2002) *Scientific writing. Easy when you know how*. London: BMJ Books.
- Robert, S. (2000). The accuracy of references of three allergy journals. *J Allergy Clin Immunol*, 105(4), 837-838.
- Siebers, R., & Holt, S. (2000). Accuracy of references in five leading medical journals. *Lancet*, 356(9239), 1445.
- Sutherland, A. G., Craig, N., Maffulli, N., Brooksbank, A., & Moir, J. S. (2000). Accuracy of references in the orthopaedic literature. *J Bone Joint Surg[Br]*, 82(1), 9-10.
- Wager, E., & Middleton, P. (2002). Effects of technical editing in biomedical journals: A systematic review. *JAMA*, 287(21), 2821-2824.

- Abstract -

Accuracy of References i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Yi, Yunjeong · Lee, Bokim***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ccuracy of references in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Methods:** All references in articles from 2007 to 2009 were compared with PubMed for authors, years, titles, journals, volume, and page accuracy. Four hundred twenty six references were reviewed. Errors were classified either major or minor. **Results:** Overall rate of inaccurate reference was 46.5%. 34.5% were major errors and 18.8% were minor errors. Most common major errors occurred in the authors, whereas most common minor errors occurred in the titles. **Conclusion:** It is necessary that authors, reviewers, and editorial committees make more efforts to enhance the reference accuracy.

Key words : Reference, Citation, Accurac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